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냅음의 품격

마음을 울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듯한 수선비를 내고도 기분이 좋았다.
뭔가 독일이 살 때 본 그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머니'는 가문과 유산의 유무를 떠나 하나의 스타일이자 미학적인 트렌드로 우리 생활의 라이프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것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좋은 품질을 내세우는 물건에는 응당한 가격이 있다.

심란한 마음이 들 때 청소와 정리만 한 좋은 소일도 없다.
결연한 각으로 신발장부터 손을 뺐었지만 정리로 소생시킨 조리형 만능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사이'의 일

금했고, 소설을 읽을 때 역시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더욱 솔깃해지곤 했다.
서문이나 발문, 해설 등을 빼놓지 않고 보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 그 말이 딱 들어맞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오래전 서점에 책을 사러 갔었다. 책값을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주인이 불쑥 책 한 권을 더 주었다.
단골이라고 선심을 쓴 것이었는데, 돌아와 읽어 보니 누군가의 '틈'을 엿보는 것처럼 은근한 재미가 있었다.

기고



김용덕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세대 갈등과 세어 하우스에 대한 단상

등 대학 도시의 경우에는 타지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나이가 들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집에서 흡스테이를 하면서 집주인을 부모님처럼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외 특파원이 기사로 보도하거나 가끔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가령 성공보다는 실패, 좌절, 혼돈, 외로움 같은 것. 기쁨보다 슬픔. 추억보다 상처.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게 된 것들.
그런 연후론 내 삶도 조금은 가지런해지는 기분이 든다.

얼마 전 한 일간지에서 의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최근 대학가에서 각광받고 있는 '세어 하우스'에 대한 내용으로 손자빨인 대학생과 노인이 한 지붕에서 부대끼며 살면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소개했다.

社說

전기차 시대, 정비업계 전문 인력 양성 시급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광주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비업계가 엔진 자동차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고전압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55.9%는 전기차로 주력 정비업을 변경하고 싶어 하지만 정비업체 세 곳 중 한 곳에 해당하는 32.9%는 '변경의사가 없다'며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네에 카센터가 줄어드는 것에서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짐작했지만 이번 조사를 보니 업계의 위기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늘리고, 환경 지키고 '탄생수 숲' 확산돼야

출산을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지방 소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이 진행하고 있는 '신생아 탄생 기념숲 나무 심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등백나무 등이 인기가 있으며 탄생수 앞에는 신생아의 이름과 탄생 축하, 건강 기원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세워둔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출산율 1.8을 기록해 전국 평균 출산율의 2배를 넘겼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자치단체로 꼽히기도 했다.

Advertisement for 'No Equal Drum' (無等鼓) featuring a table with 'Our Motto' (우리말) and 'No Equal Drum' (無等鼓) columns. The tex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local language and culture.